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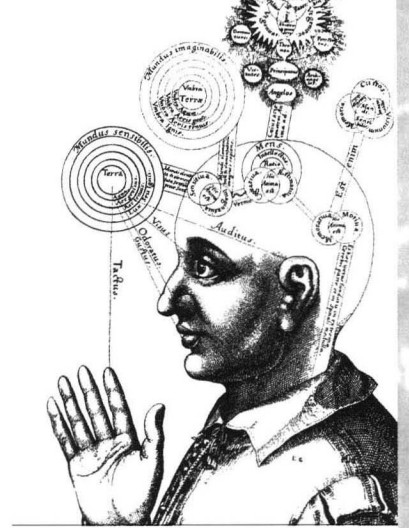
외적인 형식보다 진정한 아카데미 정신 담아내는 것이 중요

정연재_ 도서출판 아카넷 출판팀장

최근 2003년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학술부문이 선정 발표되었다. 단순한 대학교재나 개론서를 제외시키고 학술성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선정의 변은 어려운 학술출판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임을 알 수 있다. 가문의 단비와 같은 이러한 지원정책은 학술출판을 주로 하는 일선 출판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일회적인 정책지원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 출판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학술출판은 무엇이며, 진정한 학술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카데미와 연관된 단어의 의미변화를 찾아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우리의 언어사용에서 명사 아카데미Academy와 형용사 아카데미academic은 현격한 의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명사 아카데미는 원래의 학술적 의미보다는 실용적 의미에서 파악하는 것이 익숙해질 만큼 커다란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된다(직업교육을 포함한 실용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명칭에 '아카데미'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 아카데미는 여전히 학술적 의미가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바로 형용사 아카데미가 학술적 연구 academic studies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카데미'와 관련된 의미분화는 지금의 학술출판과 광범위한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실용성'이 지배하는 우리 대학의 분위기를 보면 다시 한 번 아카데미라는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낯선 의미간의 충돌을 목격하게 된다. 전인교육, 진리탐구라는 학문적 목적으로부터 보다 나은 취업조건과 사회적 지위확보를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대학교육의 지향점이 급속하게 옮겨가는 현실은 학술서의 잠정적인 독자층 감소라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앞으로 대학사회가 학술출판의 생산과 소비의 진원지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광범위한 위기의식을 낳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대학의 역할과 학술출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문연구가 우선이나 실용교육이 우선이나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대학 설립 초기인 서양 중세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실용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처하는 대신에 대학 본연의 존재이유인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지적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야 하며, 학술출판이 그 선



두에 서야 한다.

학술출판이 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충실히 담아내는 작업, 즉 아카데미즘의 전통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의라면, 이제는 학술출판의 전향적 인식전환, 즉 교양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학술출판의 정체성을 수용자적 측면에서 찾는다는 것은 그간 학술출판과 관련된 업숙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교양서를 출간하면서 '비학문적'이라는 혐의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 아닌가. 이제는 학술성, 학술출판에 관해 유연한 시각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수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연구가 맞이해야 하는 운명은 도서관에 아무리 많은 책이 있어도 그것을 읽으러 가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문학의 위기, 이공계 위기 등 대학사회의 전반적 위기감 속에서 결국은 '읽힐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은 위기 극복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공교육의 고립성을 타파하고 인접학문과의 연관성과 통합감각을 길러주기 위한 학부제가 일선 대학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공의 심화에도 기여하며, 전공의 고립성을 보완하는 연결고리로서 특유의 정체성을 가진 교양교육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출판 시스템은 학제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주장하려 하는 것은 학술출판의 정체성과 영역을 둘러싼 통상적인 논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외적인 형식으로 출판되건 진정한 아카데미 정신(학술성)을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식(학문)이 정보라는 단어에 급속히 대체되어 가는 현실에서 실용적 정보에는 부재한 아카데미 정신과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생산적으로 그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할이 학술출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학술출판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편집자로서 안정적 출판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들을 간단히 적어본다.

첫째, 학술서의 안정적 구매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출판사-도서관 연계 출판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학술출판의 안정적 입지가 도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없이 강조해 왔지만 학술서의 1차 소비자는 도서관(특히 대학도서관)이 되어야 하며, 직접 독자가 구매하는 것은 교양, 실용서 위주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52개의 대학도서관과 450개의 공공도서관에서 1종당 1.2권만 구입해도 출판사 입장에서 최소 1,000부에서 1,500부까지의 판매부수가 확보되는 셈이다.

둘째, 학술출판의 생산자(또는 소비자)로서의 필자의 역할이다. 계량적인 교수업적 평가, 폐쇄적인 분과학문 체제, 독창적 사유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로막는 경직된 학회 분위기 등 학계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학술출판의 현재 모습과 대동소이하다. 올해 학술연구기반 조성사업 예산 가운데 약 50퍼센트인 1,000억 원이 연구자 중심의 학술지원사업에 책정,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수준 높은 학문적 성과를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는 양질의 출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출판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수준 높은 학술원고가 시장상황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단순히 교재나 소속대학 교수들의 연구결과를 형식적으로 출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훌륭한 학문적 성과를 담아내는 역할을 대학출판부가 맡아야 한다(미국의 학술서적의 80퍼센트가 대학출판부에서 출간된다). 학술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양서 출간, 특성화된 기획 등 도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차후의 문제이다. ■■